

#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가족정책

윤 소 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면서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어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자원을 어떠한 활동에 배분하여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주어진 24시간 동안 직장에 나가 일하고 학교에 가서 학습하는 시간은 다른 삶의 영역을 구분하고 배분하는데 기준점이 된다. 즉 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은 구속된 시간으로 개인의 자유의지로 증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학습시간이 긴 국가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2000년 현재 OECD 회원국의 1년 평균 노동시간이 1,749시간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444시간 더 일하는 가장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 청소년의 학업시간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주당 평균 15시간이나 많은 주당 49.43시간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9). 따라서 한국인들은 장시간 일하고 장시간 학업시간에 구속되어 다른 활동에 시간을 분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실이다.

더욱이 삶의 질과 행복사회 지향을 중요시하면서 일중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때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각 국가들은 관련 제도를 만들어 노동시간을 줄여가고 있으며, 한국도 2004년부터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어 2011년 7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의 경우 주5일수업제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특히 교육현장의 창의성과 인성을 중요시하면서 학교울타리 밖의 교육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사회는 2004년부터 우선시행학교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하던 주5일수업제도를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자율도입하게 되었다. 개념적으로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이 여유를 가지고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수업일을 주당 6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학교 운영”을 말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학습의 장을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여 학생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www.crezone.net).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주5일수업제 대비 토요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1년 이후 제안되어 실시

되고 있는 토요일돌봄교실 확대, 토요일 방과후학교 확대, 토요일 스포츠데이 운영, 토요일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확대, 학교밖 체험활동 지원 및 종합안내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와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부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해 가정은 어떠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즉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의 여가정책과 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현재 주5일 수업제 도입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학생들이 학업이외의 다양한 활동의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본다. 셋째, 가족정책의 방향성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정책실현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논의의 출발과 맺음을 정책적인 내용과 과제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관련된 이론적 논거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 2. 주5일수업제 대비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5일수업제 추진배경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립, 그리고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품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매리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www.crezone.net).

주5일수업제는 2005년 월1회, 2006년 월2회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오다가, 2011년 6월에 2012년도부터 전면 자율도입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전국 6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수업일수 주5일 기준으로 190일, 205일, 220일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자율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 초·중·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공포(2011년 10월)한 결과, 2012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99.6%에서 주5일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자율 시행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주5일수업제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내용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토요일 돌봄수요를 전부 수용하며, 다양한 토요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연계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선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노동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토요일 돌봄교실 운영’을 운영하여 2012년 2월 현재 5,225개 학교에서 5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지원을 제공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1년 12월 현재 전체 아동센터(3,500개소) 가운데 32.4%에 달하는 1,134개소에서 토요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체능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토요 방과후학교, 토요 스포츠데이, 토요 문화예술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들도 토요문화학교(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육(국토해양부), 가정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여성가족부), 솔로몬 로파크 ‘토요법체험 프로그램’ 개설(법무부), 토요일 직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부모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고용부),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및 생태관광 바우처 운영(환경부), 주말 금융교실 개설(금융위원회) 등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밀집학교를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로 선정하여 학교 토요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고 학교밖 체험 프로그램 종합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의·인성교육넷”(www.crezone.net)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주5일수업제의 토요프로그램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선진화의 정책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한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중심의 교육과 함께 가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인격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창의 및 인성 덕목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지역사회와 가정의 교육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sup>1)</sup>에 달하지만 국가 창의역량은 OECD 15개국 가운데 11위로 나타나(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자원과 환경 구축이 절실하다. 토요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과후프로그램 등이 학교에서 많은 부분 담당하여 발생하는 학교의 피로 누적을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함께 연계하는 지역사회교육공동체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가능한 인적 및 물적 교육자원을 총동원하여 토요일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창의 및 인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대한 요구와 계획도 진행중이다.

이와같이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창의학교의 개념으로는 경기창조학교의 예를 들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2009년 경기창조학교를 설립하여 창조문화 확산을 위해 5개 분야 50여개 창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스토리텔링방식, 디지로그방식, 멘터링시스템 등의 학습방법을 도입하여 60여명의 멘터와 약 9,000여명(2012년 3월 현재)의 멘티회원을 확보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과 노매딕 캠퍼스(찾아가는 이동교실) 형태로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토요 교육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은 아동·청소년 전체이지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 한부모가정, 나홀로학생 등의 보육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문화 예술과 체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체험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와 동아리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방법적으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다.

---

1) OECD(2009) 자료에 따르면,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나타난다.

### 3. 주5일수업제 대비 토요프로그램의 기본조건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토요프로그램의 성격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면, 이러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토요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에 대한 것이다. 주5일수업제의 출발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새로운 인간형을 길러낸다고 본다면, 토요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과 창의성 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과 창의성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고령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시점에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까지 전 생애에 걸쳐 창의적인 능력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배운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와 이에 대한 대비 프로그램은 기본방향은 창의성과 행복한 삶에 기반한다고 본다.

창의적인 능력과 행복한 생활은 짧은 기간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에, 생애주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창의교육과 삶의 균형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5일수업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실제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생애주기 초반, 즉 아동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이나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 청소년기를 거쳐 중장년기, 그리고 생애의 후반기에 걸쳐 지속된다.

예를 들어 지속이론(continuity theory)에 근거하여 K. Roberts(2006)<sup>2)</sup>는 아동기와 청년기에서의 여가사회화는 중요하며 이러한 초기 생애단계부터 가져온 여가기술과 관심은 노년기의 여가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여가사회화가 가지는 강력한 영향력을 예술과 스포츠 분야로 설명하였는데, 어렸을 때 정기적으로 클래식 연주회를 관람했거나 미술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수준 높은 활동을 할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기 동안에도 스포츠 활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풍부한 스포츠 활동의 초기사회화가 필요하며 교육의 시기에서 노동시장, 결혼, 부모의 시기로 전환되는 동안 스포츠 활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Robson(2003)도 영국의 1970년 동시출생집단(cohort) 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도서관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작곡이나 다른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16세 청년들은 계속해서 높은 교육 수준을 달성하고 이어서 높은 수입을 이루며, 또한 성인기 동안 시민 참여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Roberts, 2006에서 재인용)고 보고한바 있다.

결국 생애주기 초기에 경험한 다양한 체험교육은 아동 및 청소년기 동안 창의적인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 뿐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지속성은 삶의 균형, 즉 일이나

---

2) Ken Roberts(2006)는 그의 저서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를 통해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 걸쳐 여가행동이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성인들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과 관심에 근거하여 새롭게 여가를 배워나가며, 이러한 관심은 어렸을 때 처음 배운 이후 정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습시간을 다른 삶의 영역과 균형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안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을 위해 사용하고 제한된 시간동안 여가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거나, 또는 그러한 시간배분이 마땅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윤소영, 2010).

한편, 주5일수업제와 관련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양한 활동에 체험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활동을 탐색적으로 늘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양한 활동에 체험하는 과정은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실제 창의성과 인성 개발로 연결되어야만 의미있다. 즉 다양한 활동을 체험한 뒤 자신에게 맞거나 제한된 자원으로 가능한 활동을 선택해서 이를 지속함으로써 경력(career)을 쌓아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발달과정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호주의 Perth볼링장의 노인여성 회원의 볼링경력이 개발되는 단계에 대해서 연구한 Linda Heuser(2005)나 영국의 아이스하키 팀인 Manchester Storm의 서포터즈들이 자신들의 경력을 개발해나가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밝힌 Gray Crawford(2003)의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활동에 지속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공동체활동에 참여하여 그 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활동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사회성을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Roberts, 2006).

따라서 주5일 수업제 대비 토요일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점차로 그 활동에 몰입하고, 그 활동을 지속하여 경력을 갖게하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안되는 방식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전문가 인력과 연계하여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 문화활동 동아리 지원,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예술강사 파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인력 양성에 대한 과제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과제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실제 주5일근무제 실시후 생활상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소비활동이 늘고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들어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생활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14.4%이며, 여가 소비지출 부담의 증가와 수입감소의 변화를 제시한 경우가 10.7%에 이른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해 노동시간은 감소했으나 준비없이 시간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활동이나 생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시간 감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더 큰 까닭으로 분석된다.

여성가족부의 ‘2010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5일근무제나 주5일수업제 등의 도입으로 인해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여가시간의 변화를 묻는 질문(N=3,107)에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N=663)를 제외하고 약 56%의 응답자(N=1,728)들이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전과 비교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약 15%(N=449)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5일근무제나 주5일수업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생활시간상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나 여가시간의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

거나, 일(또는 학업) 이외의 생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도입과 관련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변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생활상의 ‘변화’(change)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홍보 및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 4.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가족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주5일 수업제 도입의 효과로 기대되는 바는 아동 및 청소년 자녀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된 교육공동체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자녀가 가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증가시켜 나갈 것이며, 가족은 자녀들의 시간상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후자의 문제는 앞서 제안된 보육지원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으므로 여기서 제외하기로 한다.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은 가족의 안정성과 결합성 증진이라는 기능을 목적으로 강조된다. 특히 가족여가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며 자녀의 재능과 흥미를 북돋아주고 일상생활의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제공하며(Freysinger, 1994),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 역동성 및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최길례, 2003). 그리고 자녀교육기 가정의 여가활동 중 교육체험지향활동은 상호작용성, 정서안정성, 관리능률성을 증진시켜 준다(지영숙·이태진, 2001)는 점에서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기능을 부여한다.

가족여가활동은 주로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가장 많은 제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윤소영, 2009). 그리고 아동기 자녀와 그들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은 주로 자녀의 연령, 흥미, 교육 등에 초점을 두어 부모가 동반 참여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하기 보다는 자녀중심의 프로그램에 부모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실험조사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량이 많다고 관계만족도가 증진되지 않고 오히려 지겨움과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윤소영, 2009). 결국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그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단위로 동일한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방안을 늘리는 것이 제안된다. 그리고 토요일문화학교나 토요일 스포츠데이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된다. 지역사회

단위로 토요일문화학교나 토요일스포츠데이에 전문강사나 보조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부모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된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홀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또는 맞벌이부부 가족의 자녀들의 심리적 소외문제이다. 토요일문화학교에 다른 친구들의 부모들이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부모가 없거나 참여가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으로 대표 부모를 선정하여 이들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연계되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단위의 교육공동체 형성에서 부모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멘토를 아동 청소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요 대상으로 고령층의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런던의 Magic Me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교와 노인복지센터를 연계하여 노인 멘토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전문예술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아동 청소년과 연계하고 있다. 예를들어 지역 학교의 아이들과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들이 함께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학교와 노인센터의 외벽을 장식하는 ‘모자이크 프로젝트’와 노인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거나, 혹은 자신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이야기 한 후 이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그 장면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으로 달력을 만드는 ‘Age Calendar 프로젝트’ 등을 통해 예술활동을 통한 세대간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 5. 나오면서

2012년 3월 주5일수업제의 전면적인 자율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지역사회나 가정과 연계하여 확대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도입과 준비과정에서 교육중심의 환경에서 자율적인 토요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 사교육시장의 급성장의 문제,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의 보육지원 문제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토요일문화학교나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도 오히려 학교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더불어 정교하게 계획된 토요프로그램과 가족-지역사회의 준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5일수업제를 대비하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이나 보육지원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예상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기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와 인성을 갖춘 미래형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기본적인 조건들을 다루면서 주5일 수업제이후 아동, 청소년의 생활변화와 그들의 요구를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생활

상의 변화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제안하고자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앞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실태분석과 요구분석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관련 정책의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주5일수업제 대비 토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2010).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 윤소영(2009). 가족여가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4). 189-201.
- 윤소영(2010). 여가에 대한 생애주기 관점과 여가생활주기 단계별 모형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103-115.
- 지영숙 · 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유형-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창의 · 인성교육넷, [www.crezone.net](http://www.crezone.net)
- 최길례(2002), '가족의 여가활동이 정서적 역동성과 가족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법제처,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 Freysinger, V. J.(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Further evidence of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3), 212-226.
- Heuser, L.(2005). We're not too old to play sports: the career of women lawn bowlers. *Leisure Studies*, 24. 45-60.
- OECD(2009, 2011), OECD Factbook
- Roberts, K.(2006). *Leisure in Contemporary Society*. UK:CABI.

##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여가 및 가족정책

조 성 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본부장)

학습시간과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그리고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의 여가 및 가족정책을 다룬 주제는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이다. 특히 주5일 수업제에 의해 이제 새로운 생활습관과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아동 청소년 및 가족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연구자의 발표에 좀 더 추가해서 살펴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토요일 청소년 및 가족여가 확대를 위한 가까운 지역내 문화공간의 확대이다. 공원, 운동장등 무료로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국가 정책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내 가족들이 함께 동아리활동을 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의 하면서, 동아리활동을 할 공간과 동아리 지원 기관에 대한 언급도 구체적으로 제안사항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0개 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동아리 활동에 대한 시범사업이 운영중이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수요 증가에 따른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놀이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일 중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나, 이는 경제활동시간을 줄여 토요일 일요일의 휴식을 확보해야 하므로,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주5일 근무제 실시후 생활상의 변화는 없고 오히려 소비활동이 늘고 있다는 연구자의 지적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방향도 논의에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특히 학교활동에서의 체육, 스포츠등의 동적 활동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휴일 활동이 정적인 활동이 아닌 동적인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터넷, 게임등의 새로운 여가 활동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된 동적인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보다 활동적인 동적인 활동으로 구성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원문화이다. 토요일 일요일 학원에 대한 정책적 제제나 조치가 주어지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등교하는 활동외에 확대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토요일 여가 및 가족정책이 주로 초등학생 대상에 중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토요일 학교등교가 없는 것 만 아니라 학원등교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언급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의 토요일 관련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지원체계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